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

- 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제3판)을 중심으로 -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제3판 『국화와 칼』의 주석에 보이는 특이점 |
| 2. 『국화와 칼』의 연구 현황 | 5. 마치며 |
| 3. 제3판 『국화와 칼』의 주석 유형 | |

主題語: 번역자(translator), 관점(perspective), 윤리(ethics), 국화와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주석(annotations)

1. 들어가며

번역자는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가교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기에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는 중요하다. 번역서는 보통 본문을 비롯하여 역자 서문, 역자 해제, 역자 후기, 역자 주석(註釋)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 번역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번역에 임했는지, 곧 번역자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독자는 원서가 아니라 번역서로 원서의 주제와 내용 등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번역자는 원서의 표지, 색깔, 크기 등과 같은 서지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원서에 있는 저자의 주석, 곧 원주(原註)의 유무(有無)까지 알고 있지만, 독자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번역자는 번역할 때 윤리적이어야 한다. 번역자는 저자의 작업과 번역자의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것이 번역자의 기본 윤리라고 생각한다.¹⁾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예컨대 정영목은 번역 윤리에 대해 “윤리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라 할 때 번역 윤리의 핵심은 좋은 번역이며 이것이야말로 번역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때 그가 말하는 좋은 번역이란 번역서가 외국 텍스트의 이질성을 낮춘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로렌스 베누티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정영목과 로렌스 베누티는 번역 윤리의 기준을 타국화 번역, 낯설게 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말하는 번역자의 윤리와 그 개념이 다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번역자의 윤리는 낯설게 하는 번역이나 익숙하게 하는 번역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서에

일본연구의 고전(古典)이자 정전(canon)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스 베네딕트(1946)의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는 우리말로 『국화와 칼』이라고 번역됐다. 한국어판 『국화와 칼』은 지금까지 여러 번역자에 의해 번역되어 왔는데²⁾,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김윤식과 오인석이 공역한 『국화와 칼』이다. 지금까지 총 5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제1판은 1974년, 제2판은 1991년, 제3판은 1995년, 제4판은 2002년, 제5판은 2008년에 각각 출판됐다. 제1판은 발췌번역이었고, 제2판부터는 완역(完譯)이었다.³⁾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판(版)을 비교해보면서 김윤식과 오인석이 『국화와 칼』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번역에 임했는지, 곧 번역자의 관점을 추적해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번역자가 어느 정도의 번역 윤리를 가지고 번역에 임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를 논하는 데 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은 최적의 텍스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고가 이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이유다.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를 고찰하는 데 번역서에 보이는 주석은 대단히 유효하다.⁴⁾ 왜냐하면 동일한 한국어판 『국화와 칼』이라고 하더라도 번역자에 따라 주석하는 곳이 다를 수 있고, 설령 동일한 곳에 주석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번역자의 관점이 투영된 결과다. 또한 원주와 역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번역자의 윤리가 명확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난다.⁵⁾

저자가 수행한 일과 번역자가 한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영목(2018)『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문학동네, p.61

로렌스 베누티 저, 임호경 역(2006)『번역의 윤리』열린책들, pp.1-350

- 2) 편집부 역(1974)『국화와 칼』(중앙일보사), 김윤식·오인석 공역(1974)『국화와 칼』(을유문화사), 이동휘 역(1983)『국화와 칼』(가야) 등 20종에 가까운 번역서가 출간됐다.
- 3) 박상현(2018)「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연구-주석 유형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제6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0-25
- 4) 물론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를 논할 때 ‘본문’도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자는 번역할 때 본문에 새롭게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번역서에 보이는 변용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본문’에는 ‘주석’과 달리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번역자의 개입이 주석만큼 명확히 그리고 확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5) 번역자가 번역서에서 원주와 역주를 명확히 구분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번역자의 윤리를 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대해 “번역서에서 원주와 역주를 구분하지 않거나, 혹은 원주를 역주처럼 처리하는 것은 번역 관행이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번역계에서도 윤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자가 번역서에 붙이는 역주는 번역자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역주를 가지고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를 논하기 어렵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번역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는 출판사일까? 아니다. 번역자다. 번역자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출판사가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번역 책임에서 번역자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자 서문의 마지막에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번역자에게 있다고 적는 것이다. 여하튼 혹 있을지도 모를 이와 같은 번역 관행에서 앞으로는 벗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판 『국화와 칼』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김윤식·오인석 공역의 『국화와 칼』(제3판)에 보이는 주석을 검토하여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⁶⁾

2. 『국화와 칼』 연구 현황

일본학 연구의 정전이자 전범이라고 하는 『국화와 칼』이지만, 그리고 여러 번역자가 번역해 온 『국화와 칼』이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의외로 많지 않다.⁷⁾ 주요 연구논문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숙인의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 김상규의 「『국화와 칼』의 사회학」, 박용구 「전시 정책보고서로서의 『국화와 칼』」, 박상현의 「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초판) 연구」 정도다.

권숙인은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에서 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의 일본문화연구를 비교 검토한 후, 베네딕트는 일본인의 ‘에토스’, 즉 정서적 동기화, 세계관, 가치관, 규범적 강제 등에 대해 정교하게 고찰했다고 평한다.⁸⁾

김상규는 「『국화와 칼의 사회학』에서 『국화와 칼』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국화와 칼』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⁹⁾

박용구는 「전시 정책보고서로서의 『국화와 칼』에서 지금까지의 『국화와 칼』연구가 일본문화의 패턴이나 윤리 덕목이라는 문화론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전시 정책보고서라는 관점에서 『국화와 칼』을 새롭게 재구성했다.¹⁰⁾

-
- 6) 본고에서는 김윤식과 오인석이 출간한 다섯 종의 판본 가운데 제3판을 분석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판은 영어 원서 13장 가운데 10장만 골라 우리말로 옮겼다. 완역이 아니었다. 둘째, 제2판은 완역이기는 하지만 주석 측면에서 볼 때 제1판과 큰 변화가 없었다. 셋째, 제3판은 완역이고, 여기서는 새로운 주석이 대폭 추가됐다. 그리고 이 제3판에 붙어 있는 주석은 이후 제4판과 제5판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주석을 통해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를 논하는 데, 제3판은 최적의 텍스트다.
- 7) 한국어판 『국화와 칼』에는 이것에 대한 해설이 달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친절한 해설이 오히려 『국화와 칼』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곧 해설에 만족해 버린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 8) 권숙인(2003)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 『국제지역연구』 제12집,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p.45-66
- 9) 김상규(2005) 「『국화와 칼』의 사회학」 『일본어문학』 제29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551-574
- 10) 박용구(2014) 「전시 정책보고서로서의 『국화와 칼』」 『일본연구』 제6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p.83-108

박상현은 「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초판) 연구」에서 첫째, 김윤식과 오인석이 공역한 한국어판 초판 『국화와 칼』의 주석을 분석하여 여기에 다섯 가지 유형의 주석이 시도됐다는 것을 최초로 제시했다. ‘일본 관련 지식 유형’, ‘일반 지식 유형’, ‘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 ‘역자 비평 유형’, ‘출전 명시 유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주석 유형 가운데 김윤식과 오인석은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특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둘째, 김윤식과 오인석이 『국화와 칼』에서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역점을 둔 것은 바로 김윤식과 오인석이라는 ‘번역자의 관점’ 곧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인에게 일본 이해를 돕고자 했던 ‘번역자의 관점’이 투영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¹¹⁾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본고에서는 특히 박상현이 주목한 『국화와 칼』의 주석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주석을 키워드로 『국화와 칼』(초판) 곧 제1판을 분석하여 번역자의 관점에 대해 언급했다.¹²⁾ 본고에서는 그의 관점을 계승하면서 제3판 『국화와 칼』을 분석하여 번역자의 관점과 더불어 번역자의 윤리까지 논하고자 한다.

3. 제3판 『국화와 칼』의 주석 유형

『국화와 칼』의 영어 원서와 제3판 『국화와 칼』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영어 원서 『국화와 칼』과 제3판 『국화와 칼』 목차

영어 원서 ¹³⁾		제3판『국화와 칼』 ¹⁴⁾
1장	Assignment: Japan	연구과제-일본
2장	The Japanese in the War	전쟁 중의 일본인
3장	Taking One's Proper Station	각자 알맞은 위치 갖기
4장	The Meiji Reform	메이지유신
5장	Debtor to the Ages and the World	과거와 세상에 빚을 진 사람
6장	Repaying One-Ten-Thousandth	만분의 일의 은혜 갚음
7장	The Repayment 'Hardest to Bear'	기리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
8장	Clearing One's Name	오명을 씻는다
9장	The Circle of Human Feelings	인정의 세계

11) 박상현(2018)「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초판) 연구」『일본문화연구』제6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01-218

12) 단, 번역자의 윤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0장	The Dilemma of Virtue	덕의 딜레마
11장	Self-Discipline	자기 수양
12장	The Child Learns	어린이는 배운다
13장	The Japanese Since VJ-Day	패전 후의 일본인

위의 제3판 『국화와 칼』 목차에서 ‘패전 후의 일본인’이라는 번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역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상현은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김윤식과 오인석은 제1판에서는 ‘VJ-Day’를 ‘대일전승일’로 옮겼고, 이때 주어(主語)는 미국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제2판 이후에 김윤식과 오인석은 ‘대일전승일’이라는 번역어 대신에 ‘패전(敗戰)’이라는 번역어를 썼다고 말한다. 곧 ‘The Japanese Since VJ-Day’를 ‘패전 후의 일본인’으로 옮겼고, 이때 주어는 일본이었다고 지적한다. 곧 ‘패전’이라는 번역어에는 일본이 전쟁에 졌다는 번역자의 역사적 판단과 인식이 담겨 있다고 언급한다.¹⁵⁾

그럼 지금부터 제3판 『국화와 칼』에 있는 주석¹⁶⁾을 살펴보자.¹⁷⁾

<표2> 제1장 ‘연구과제-일본’¹⁸⁾

솔로몬 군도: 1942년 8월 솔로몬 군도의 과달카날 섬에 미군이 상륙, 일본군 수비대는 전멸당하고 말았다.
6월: 1944년 6월, 미군이 사이판 섬에 상륙, 일본군은 전멸 당함.
제2전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 북쪽 해안의 노르망디에서 상륙 작전을 개시, 제2전선을 결성하였다.
다모클레스의 칼: 신변에 따라다니는 위협이란 뜻. 다모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칠리아섬의 시라쿠사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신하인데, 디오니시우스왕이 잔치에서 다모클레스의 머리 위에 머리카락 하나로 칼을 매달아 놓고 왕위에 있는 자에겐 언제나 위협이 따른다고 가르친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13) Ruth Benedict(2005)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Mariner Books, p.1

14) 목차에 보이는 강조 표시는 인용자. 이하, 강조 표시도 인용자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국화와 칼』(제3판), 을유문화사, p.9

15) 박상현(2018), 앞의 논문, pp.10-25

16) 여기서는 루스 베네딕트가 붙인 원주(原註)는 제외하고 김윤식·오인석이 붙인 역주(譯註)만 정리한다.

17) 총 13장에 걸친 주석을 인용하다보니 분량이 다소 많다. 하지만 논문 전개와 분석을 위해 본문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양해를 바란다. 또한 역자 주석에 보이는 오타 등은 줄고의 각주에서 바로 잡을 예정이다.

18)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14-25

<표3> 제2장 ‘전쟁 중의 일본인’¹⁹⁾

추축국(樞軸國):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이탈리아·독일의 연합세력을 말한다.
대본영: 일본에서 전시에 설치되는 천황 직속의 최고 통수부.
이오지마(硫黃島): 일본은 1944년 7월 7일 사이판섬에서 전 수비대가 전멸 당했고, 1945년 3월 25일에는 이오지마의 수비대 2만 3,000명이 전멸 당했다.
아라키(荒木): 아라키 사다오(荒木真夫, 1877-1966). 육군 대장. 황도파(皇道派)의 수령으로 군국주의화를 추진.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종신 금고형을 받음.
황도: 천황(天皇)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말한다.
사무라이: 무사. 봉건적 제도에서 칼로써 영주를 지키는 일본적인 특수계층을 말한다.
가미카제(神風):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원(元)나라 군대가 일본을 침략했으나 그때마다 큰 바람이 불어 원나라 군함이 침몰하여 일본군은 그들을 어렵지 않게 물리쳤다.
키스카 섬: 북태평양, 알래스카에서 서쪽으로 뻗은 열도의 최서단에 있는 섬. 1942년 6월 일본군이 이 섬을 점령했으나, 1943년 8월 미국이 탈환했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사이고 다카모리(1827-1877). 메이지 유신의 공신. 막부(幕府) 토벌 운동에 활약. 육군 대장 참의(參議)를 지냄.
아마시타(山下): 아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1885-1946). 육군 중장. 1944년 필리핀에 있는 일본군 총사령관으로 미군 상륙에 맞서 싸웠다. 패전 후 현지 군사 재판으로 처형됨.
바티안반도: 필리핀 루손 섬 남서부 마닐라 만에 있는 반도. 1942년 일본군이 점령. 1945년 미군에게 탈환되었다.
과달카날섬: 남서 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있는 화산섬. 1942년 ²⁰⁾ 8월부터 약 6개월간 일본군과 미군 사이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져 일본군이 패배했다.
다이묘(大名): 각 영주(領主)를 말한다. 일본은 완전히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영주들에 의해 통치되고 그 영주 중의 가장 힘센 자가 소위 소군(將軍)인 것이다. 그 소군이 바쿠후(幕府)를 만들어 전국을 통치했다.
신토: 일본의 국가종교를 말한다.
데모크라시: 저자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일부러 일본인 발음을 흉내 내 ‘de-mok-ra-sie’라고 표기하고 있다.
도조(東条):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1884-1948).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의 군인이자 총리대신. 전범(戰犯)으로 처형되었다.
천장절(天長節): 일본천황의 탄생일.
칙유(勅諭): 1882년 1월 4일, 메이지(明治) 천황이 육·해 군인에게 준 칙유. 일본 군대의 정신 교육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실행되었다.

19) 제3판 『국화와 칼』에는 ‘일본 군의관을 본 것은 1년에 한두 번 뿐이었다’에 대한 주석이 역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다. 베네딕트의 주석, 곧 원주다.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34-50

Ruth Benedict(2005) 앞의 책, p.38

관동군(關東軍): 만주에 주둔했던 일본 육군 부대. 일본의 만주 지배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1945년 8월 소련의 참전으로 궤멸되었다.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 1940년 10월 제2차 고노에(進衛) ²¹⁾ 내각 아래서 신체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 통치 조직.
전시특별형법(戰時特別刑法): 일본 천황의 절대적 지위는 1868년 바쿠후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단행됨으로써 확립되었다.
홀란드야. 일명 수카르나푸라. 현재 이름은 자야푸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점령되어, 뉴기니 경영 계획의 기지가 되었다.

<표4> 제3장 ‘각자 알맞은 위치 갖기’²²⁾

토크빌: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미국의 민주제에 대해서) 1835.
알렉산더 해밀턴: 1757-1804. 미국의 정치가. 미국 독립 혁명 중 많은 활약을 했으나, 정치 권력은 소수의 현자에 맡겨야 한다는 귀족주의자이기도 했다.
미국애국부인회: 1890년 워싱턴에서 창립되었는데, 회원은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한 조상의 후예로만 한정되었다.
공영권: 일본을 주축으로 하여 아시아를 단결시킨다는 소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말한다.
문자: 표의문자(表意文字)를 채용했다는 이 문자가 소위 가나(仮名)라는 것이다.
나라(奈良): 일본의 고대 수도이며 문화의 중심지
천황은 …… 중국에서 배워온 관직 위계의 제도와 법령을 채용(이하, ‘천황은’): 아마도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이 고대(古代)에는 그 문화를 한국, 즉 신라나 백제에서 배워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
번(藩): 봉건제도하의 각 영지 및 그 소속을 뜻한다. 각 번의 우두머리, 즉 영주를 다이묘(大名)라 한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초대 쇼군(재직 1192-1199). 무인 정치의 창시자.
세이이 다이쇼군(征夷大將軍):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후 막부의 주재자로 병권(兵權)과 정권(政權)을 장악한 자의 직명.
이에야스(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2-1616). 1600년 세키가하라(関が原)의 싸움에서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등을 물리치고 1603년 세이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에 임명되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다.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 에도 막부 시대, 도쿠가와 가문의 원래 가신이 아니라, 주로 세키가하라 전투 후에 복종한 다이묘들.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 에도 시대의 다이묘 중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와 친하였던 다이묘.

20) 원문 그대로. ‘1742년’은 1942년의 오타다.

21) 원문 그대로. ‘進衛’는 ‘近衛’의 오타다.

22)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57-82

히데요시(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전국 시대의 무장, 일본 천하를 통일하여 조선에 출병,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칼사냥: 가타나가리(刀狩). 사무라이 이외의 자의 무기를 압수하는 것.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명(命)을 내렸다.
아틀라스: 그리스 신화의 지구를 짊어진 신(神). 여기서는 무거운 짐을 졌다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나가는 여자와 들어오는 총(이하, ‘총’): Herbert Norman, op. cit., p.67 참조 “出女入鐵砲”의 근거는 다이묘가 처첩을 에도 성 밖으로 밀행시키거나 총기를 성안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에도(江戸): 도쿠가와 막부의 수도는 에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메이지(明治) 이후 도쿄(東京)로 개칭되었다.
구계(公卿): 구교라고도 함. 조정에서 정 3품 중 3품 이상의 벼슬을 한 귀족.
천황은 …… 교오토에 유폐되어 실권을 빼앗겼다(이하, ‘실권’): 천황은 옛부터 교토에 있었으나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이후 도쿄(에도)로 옮기게 되었다.
페리제독: 19세기말 쇄국주의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라고 군함을 이끌고 간 미국함대 사령관.
타운센드 해리스: 1804-1878. 1856년 최초의 주일 총영사로 후에 공사가 됨. 막부의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함.
지도: 여기서 ‘지도’(map)란 각기 알맞은 신분을 규정한 정신적 지도를 뜻한다. 즉 도덕적인 규범의 지도이다.

<표5> 제4장 ‘메이지유신’²³⁾

왕정복고: 이것이 소위 메이지유신이다.
사공육민(四公六民): 다이묘가 세금으로 4할을, 농민은 나머지 6할을 갖는 분배방식.
질록공채(秩祿公債): 1873년부터 75년 사이에 질록(秩祿 지위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을 반환한 사무라이 계급에 교부된 공채.
조선침략론: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우두머리로 한 재개혁파들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정책을 세운 것.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
사이고(西郷):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7-1877). 메이지 유신의 공신. 막부 타도운동에 활약, 육군 대장 겸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1873년 그의 정한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직, 반정부군을 조직 거병하였으나 패하자 자살함.
이토오(伊藤) 공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그는 서양에 유학했다가 돌아와 제국헌법(帝國憲法)을 만들었고 초대 총리대신, 초대 한국통감으로 부임.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했다.

23) 제3판 『국화와 칼』에는 ‘형편없이 싼값’과 ‘1930년대에 있어서 공업 종사자 총수의 53퍼센트가, 이러한 직공수 5명 이하의 공장이나 가정에서 일하고 있었다’에 대한 주석이 역자의 주석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타다. 원주다.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88-106

Ruth Benedict(2005) 앞의 책, pp.93-94

24) ‘스몰타임’은 제3판에서 원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영어 원서를 확인해보면 ‘스몰타임’에 관한 원주가 없다. 루스 베네딕트는 ‘스몰타임’에 주석을 붙이지 않았다. 오타인 것 같다. 역자 주석이다.

기도(木戸) 후작: 이토 히로부미 일행이 유럽에 간 것은 1882년이며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充, 1833-1877)는 그보다 5년 전인 1877에 사망했으므로 기도가 그 임무를 맡을 리가 없다. 이것은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1853-1942)의 착오이다. 가네코는 이토오의 명을 받아 1889년 유럽에 가 스펜서를 만났다.
허버트 스펜서: 1820-1903. 영국의 철학자, 사회학자. 영국 경험론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물학적 진화 사상을 원리로 하는 A System of Synthetic Philosophy를 편찬하였다.
스펜서는 이토오에게 써 보냈다(이하, ‘이토오’): 이 편지는 Lafcadio Hearn, Japan : An Attempt at Interpretation, 1940 속에 인용되어 있다.
부라쿠(部落): 여기서 ‘부라쿠’라 하는 것은 ‘部落’이라 쓰지만 실제로는 천민계급의 마을을 뜻한다. 오늘날 일본에서 차별대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곳은 재일(在日) 한국교포와 부라쿠인 것이다.
부(府)·현(県): 일본에서 부(府)라는 행정단위는 우리나라의 직할시, 현은 도(道)에 해당한다.
국가 신도(国家神道): 메이지 유신 후 신도 국교화(國敎化) 정책으로 신사 신도(神社神道)를 황실 신도(皇室神道) 밑으로 재편성하여 만든 국가 종교.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이라고 보는 천황 지배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만세일계: 천황의 가계(家系)가 끊임이 없는 단일계(單一系)였음을 신화화(神話化)한 것이다.
태양의 여신: 그들의 이른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가리킨다. 신화시대의 초대 조상 즉 일본황실의 조상이 된다는 여신.
이세신궁(伊勢神宮): 미에현(三重県) 이세시(伊勢市)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고귀한 신사이다
가구라(神楽): 궁중에서 신을 제사지낼 때 연주하는 무악(舞樂).
윌리엄 블레이크: 1757-1827. 영국의 시인·화가. 낭만파의 선구자로 소박한 정감과 환상적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윌리엄 블레이크의 Songs of Experience 중의 “the Little Vagabond”의 일절.
호움 스왓 쇼: 극도의 노동착취가 행하여지는 가내공업(家内工業).
스몰타임(small-time)²⁴⁾: 본래 흥행물을 하루에 몇 번 되풀이 상연하는 것. 여기서는 적은 자본금을 빨리 회전시켜 이익을 보는 소공업자를 뜻한다.
나리킨(成金): 분수에 맞지 않게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벼락부자.

<표6> 제5장 ‘과거와 세상에 빛을 진 사람’²⁵⁾

과거를 물려받은 자: 테니슨의 시에 ‘the heir of all the age’란 말이 있다.
가미카제(神風) 자살기(自殺機) 조종사: 가미카제(神風) 특별 공격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편성된 항공기에 의한 특공대.
옥쇄(玉碎): 구슬이 아름답게 부서지듯이, 명예나 충의를 위해 서슴없이 죽는 것.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영문학자, 소설가. 대표작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봄창>.

Ruth Benedict(2005) 앞의 책, pp.76-97

25)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109-119

<표7> 제6장 ‘만분의 일의 은혜값음’²⁶⁾

런(仁): 웨이드식 중국어 발음기호 jen은 ‘런’으로 발음된다.
아사카와 간이치(朝河貫一): 1873-1948. 역사학자, 예일 대학 교수. 일본 및 유럽의 봉건 제도 연구로 유명함.
모단: 일본인의 발음투대로 moden을 modan이라 표기하고 있다.
태양의 여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황실의 조신(祖神)으로 이자나기 노미코토(伊弉諾尊)의 딸. 태양의 여신으로 떠받들어진다.

<표8> 제7장 ‘기리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²⁷⁾

노(能): 일본의 전통적 예능의 하나로 일종의 가무극.
가부키(歌舞伎): 일본 특유의 전통적 연극. 역사적 사실, 전설 등을 배우가 나와 음악에 맞추어 연기하는 것으로 무용의 요소도 포함한다.
가구라(神樂): 궁중에서 신을 제사지낼 때 연주하는 무악(舞樂)
벤케이(弁慶): ?-1189. 가마쿠라 초기의 승려. 미나모토 요시쓰네(源義経)를 섬겨 무명을 날렸으나 미나모토 요시쓰네가 몰락하자 끝까지 그를 섬기다가 죽는다.
미나모토 요시쓰네(源義経): 1159-1189. 헤이안(平安) 말기의 무장. 형 요리토모(頼朝)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적군을 전멸시켰으나, 후에 형의 노여움을 사 전국을 유랑하다 죽은 박명의 영웅.
노구치 히데요(野口英世): 1876-1928. 일본이 낳은 세계적 세균학자.

<표9> 제8장 ‘오명을 씻는다’²⁸⁾

가쓰(勝) 백작: 가쓰 가이슈(勝海舟, 1823-1899). 메이지 시대의 정치가, 군인. 본명은 가쓰 야스요시(勝安芳). 메이지 유신 후 해군 장관, 백작을 지냄.
교육칙어(教育勅語): 1890년,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국민 도덕의 근원, 국민 교육의 기본 이념을 명시한 칙어.
군인칙유(軍人勅諭): 1882년 메이지 천황이 육·해군에게 준 정신 교육에 관한 칙유.
히로히토(裕仁): 쇼와(昭和) 천황(재위 1926-1989)의 이름.

26) 제3판 『국화와 칼』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들 사상은 분명히 천황제와 맞지 않았다. 따라서 학설로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일이 한 번도 없었다’와 ‘일본인은 집을 대단히 존중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족과 개개인의 성원과 그 성원 상호간의 가족적 유대를 너무 지나치게 존중하지 않는다’에 대한 주석이 역자 주석으로 나와 있으나, 이것은 오타다. 원주에 해당한다.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130-140

Ruth Benedict(2005) 앞의 책, pp.118-124

27)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152-157

28)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163-188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 1862-1933. 사상가, 농학자. 미국·독일에 유학 후 도쿄 대학 교수 역임. 국제평화를 주장. UN 사무국 차장으로 활약.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 1868-1936. 영어학자, 릿교 대학(立教大學) 교수 역임. 영어의 기초 교수에 진력함.
47 로닌(浪人) 이야기 : 시쥬시치시(四十七士), 아코기시(赤穂義士). 1703년 1월 30일 밤, 주군의 원수 저택을 습격 복수를 한 47명의 사무라이.
조지 샌섬 : 1883-1965. 영국의 외교관, 일본학 학자. 외교관으로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의 언어·역사를 연구했다.
하라키리(腹切) : 스스로 배를 칼로 갈라 자살하는 것. 할복(割腹).
리처드슨이라는 영국인이 사쓰마(薩摩)에서 살해되었다(이하, ‘리처드슨’) : 이 사건은 나마무기(生麦) 사건으로, 나마무기는 요코하마 시에 있었던 지명이다. 저자는 나마무기가 사쓰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해군 군축 조약 : 1922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해군 군비 제한 조약을 말함. 이 조약으로 일본의 해군 주력 함대의 수가 크게 제한되었다.

<표10> 제9장 ‘인정의 세계’²⁹⁾

간게이코(寒稽古) : 추운 겨울에 추위를 견디면서 무술 또는 음악의 훈련을 하는 것.
미즈고리(水垢離) : 고리(垢離)라고도 함. 신불(神佛)에게 기원하기 위해 냉수를 끼얹어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젠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쓴 헤이안(平安) 중기의 장편 소설, 총 54첩(帖)으로 되어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 1730-1801. 에도(江戸) 중기의 국학자. 일본 국학 4대 대가의 한 사람.

<표11> 제10장 ‘덕의 딜레마’³⁰⁾

황금률 :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
우리들은 충실한지 불충실한지, 협력적인지 고집이 센지 등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이하, ‘양과 염소’) : 마태복음 25장 32-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계슈탈트 : 심리학 용어로, 지각의 대상을 형성하는 통일적 구조, 형태.
아사노(淺野) : 아사노 나가노리(淺野長矩, 1667-1701). 에도(江戸) 중기의 아고(赤穂) 성주.
기라(吉良) : 기라 요시나가(吉良義央, 1641-1702). 에도 중기의 고관. 1701년 칙사 접대역 아사노 노리나키에게 치욕을 주어 후에 아사노의 가신에게 살해당한다.

29)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193-205

30)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209-236

31) 원문 그대로, ‘季’는 ‘重’의 오타다.

오이시(大石): 오이시 요시오(大石義雄, 1659-1703). 에도 중기, 아사노 나가노리 영주의 가로(家老)로서 <47 로닌 이야기>의 주인공.
망군(亡君)에 대한 봉고문(奉告文)을 바쳤다. 이 봉고문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이하, ‘봉고문’): 후쿠모토 니치난(福本日南)의 <겐로쿠쟁거록(元禄争挙録)>에 의하면 묘전의 봉고문은 후세의 날조라 한다. 여기서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두었다.
국민학교 5학년의 국어독본(이하, ‘국어독본’): 이것은 일본의 <소학 국어 독본>제10권(심상과용, 쇼와 12년 발행)의 제21, “국법과 대자비”를 가리킨 것이 틀림없으나 여기에 인용된 그대로의 문구는 찾을 수 없다.
교외별전(敎外別傳): 선종(禪宗)에서 부처의 교리는 경문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
불립문자(不立文字): 깨달음은 글자나 글로써 전달할 수 없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
그러므로 신의를 다하려고 생각한다면(이하, ‘신의’): 이 대목은 베네딕트가 이용한 칙유의 공인 영역에서는 “If you wish to keep your word and to fulfill your gimu”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베네딕트는 이 ‘and’를 몹시 중시해서 읽어 “사적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일과 기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반드시 항상 양립하기는 어려운 두 개의 사항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그 의미의 보충을 괄호 속에 넣어서 “If you wish to keep your word(in private relation) and (also) to fulfill your gimu”라는 식으로 쓰고 있다. 기리와 기무(여기서는 주) 사이에 대립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범한 과오다.
고토후(言)는 결국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기(義)는(이하, ‘고토후(言)’): 여기서도 베네딕트는 고토후(言)와 기(義)를 대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칙유는 그것을 그 고토후(言)는 결국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기(義)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깨달았다면.....(이하, ‘기’): 앞의 역주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베네딕트는 이 대목을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기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이라는 뜻으로 잘못 읽고 있다. 그러므로 “기리를 위해 정의를.....”과 동일한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오쿠마(大隅): 오쿠마 시게노부(大隈季信, 1838-1922). 정치가, 외무대신, 수상을 역임. 박식하고 웅변가로서 유명함. 후에 와세다 대학의 총장이 됨.
스즈키(鈴木):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 불교학자, 사상가. 선(禪)의 연구자로서 유명하며, <선이란 무엇인가>를 비롯 선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호일: Edmund Hoyle(1672-1769). 처음 위스트(일종의 트럼프 놀이)의 법칙을 조직화한 사람. ‘호일에 따라서(according to Hoyle)’라는 표현은 트럼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나 ‘정적(政跡)에 따라서’, 즉 기성의 진실한 수법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쐼는(이하, ‘숯불’):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사 숯불을 그 머리에 쐼아 놓으리라.” 즉, 적의 머리에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쐼는다는 것은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을 의미한다.

<표12> 제11장 ‘자기수양’³²⁾

베블렌: Thorstein Veblen(1857-1929).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성 테레사나, 십자가의 성 존(이하, ‘성 테레사’): Santa Thersa de Jesus(1515-1582) 및 Juna de Cruz, 혹은 Juna de Yepezy Alvarez(1542-1591), 모두 스페인 카르멜 교단에 속하는 신비주의자.
일점적(一點的, one-pointed): 이 ‘one-pointed’라는 말은 스즈키(鈴木)의 Eassys in Zen Buddhism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로, 스즈키의 설명에 의하면, 산스크리트어 ‘에카그라(ekagra)’의 역어로서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주객 미분(主客未分), 즉 마음이 한 점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통상 불교 쪽에서는 ‘일연(一緣)’, ‘일심(一心)’ 등으로 번역된다.
고토(琴): 일본의 전통적인 현악기의 총칭.
삼미센(三味線): 일본의 전통적인 현악기의 하나.
도젠(道元): 1200-1253. 가마쿠라 초기의 선승. 일본 조동종의 개조.
에이사이(榮西): 1141-1215. 일본 임제종(臨濟宗)의 개조. 선종의 일본 정착에 노력했다.
3승 12분경: 三乘 불교에서 중생을 태우고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널 때의 세 가지 교범인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뜻함. 十二分經 불교에서 모든 경전을 수다라(修多羅), 기야(祇夜), 가타(伽陀), 이타나(尼陀那), 이제왈다가(伊帝曰多伽), 사타가(闍陀伽), 아부타달마(阿浮陀壠磨), 아파타나(阿波陀那), 우바제사(優婆提舍), 우타나(優陀那), 비불략(毘佛略), 화가라나(和伽羅那)의 열둘로 나눈 것을 뜻함.
성 시메온: Saint Simeon. 3-4세기의 수도승. 북시리아 출신으로 30년간 기둥 위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 기둥은 처음에는 1미터 80센티미터 높이였으나 점차 높아져 18미터까지 올라갔다고 전해지며, 그는 그 기둥 위에서 설교하였다 한다.
간교(寒行): 추울 때 추위를 참고하는 여러 가지 수행.
고안(公案): 선종에서 참선자에게 제시하여 좌선 공부케 하는 과제.
태어나기 전의 어머니가 그림다(이하, ‘어머니’): 위의 구는 “어두운 밤에 울지 않는 까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이다. 소위 “父母未生以前本來面目”을 말한다.
남악(南嶽): 육조 대감 혜능 선사(六祖大鑑慧能禪師)의 법사(法嗣). 금주(今州) 사람, 당나라 현종 천보(天寶) 3년(1404) 68세로 시적(示寂), 대선 혜사(大禪慧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 법맥에서 임제(臨濟), 위양(僞仰)이라는 두 종파가 나왔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체가 도망쳐 버린다”(이하, ‘도망쳐 버린다’): 선어자취(禪語字彙)에 의하면 “저개본문저(這箇本分底)의 일을 한 마디라도 말하면 맞지 않는다.”라는 뜻.
딜레마의 양 각(角): 가언적(假言的)·선언적(選言的) 삼단논법(그 대표적인 것은 딜레마, 즉 양도논법(兩刀論法)에서 소전제(小前提)에 의하여 긍정 또는 부정되는 사항을 ‘각(角)’이라 부른다.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1888-1960. 그리스도교 사회운동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리스도교 전도 생활 협동조합 운동에 전력함. 저전소설 <서선을 넘어서(Before hte Daun)>가 있음.
양심: 영어의 ‘양심(conscience)’은 원래 ‘의식(consciouness)’의 의미라는 데 주의할 것.

32)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243-267

<표13> 제12장 ‘어린아이는 배운다’³³⁾

이로리(厩戸裏) : 농가 등에서 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도려내고 방한용 또는 취사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
키(기)자처럼 : ‘기(ki, き)자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를 ‘기’자로 착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에치고(越後) : 지명. 지금의 니가타(新潟)현.

<표14> 제13장 ‘대일전승일 이래의 일본인’³⁴⁾

흑룡회 : 현양사 등과 함께 전통적인 과격한 애국단체. 한일합방·중국침략 등에 로닌(浪人)으로 활동한 무리들. 어느 정당에 속하지 않고, 오직 일본만을 위한 맹목적 단체였다. 1931년 일본공산당에 흡수되었다.
나리킨 : 제4장 주20)을 참조
시데하라(幣原) : 시데하라 기지로(幣原喜次郎, 1872-1951). 외교가, 정치가. 1945년 수상에 이어 진보당 총재를 지내고 후에 민주당, 자유 민주당에 참가.
라프카디오 한 : 1850-1904. 일본 문학자. 원래 영국인이었으나 일본으로 귀화, 고이즈미 야구모(小泉八雲)라고 개명,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일본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
러시아군의 항복 : 노일전쟁(露日戰爭)을 뜻한다. 해군은 진해 앞바다에서 발틱함대를 격침시켰고, 육군은 랴오둥 반도의 뤼순에서 승리한 것이다.
노기진자(乃木神造) : 노기 마레스케(乃木稀典, 1849-1912) 대장은 그 전쟁 후 군에서 불러나 일본의 귀족학 교인 학습원(學習院)교장 생활로 여생을 보내다가 그가 충성한 메이지천황이 죽자, 그 뒤를 따라 자기도 목숨을 끊어 순사(殉死)한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 신사를 지었다.
바타안반도 : 필리핀의 주도(主島)를 뜻한다. 태평양전쟁 중 바타안반도가 중요했던 것은 맥아더 패배와 승리가 이 지명과 관계되었기 때문이다.
포오츠머드조약 :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군축조약을 뜻함.
흑룡회 : 제10장 주1) 참조

위의 <표2>~<표14>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윤식과 오인석은 제3판 『국화와 칼』에서 총 145개의 주석을 붙였다. 이 가운데 <표14>에 보이는 ‘나리킨’과 ‘흑룡회’에 관한 주석은 중복이다.³⁵⁾

33) 제3판 『국화와 칼』에는 ‘성적인 관심이 감퇴함에 따라 동갑의 모임이 일생에 남는 진짜 즐거움이 된다. 스에(그 마을) 사람들은 동갑은 아내보다 인연이 깊다고 말하고 있다’, ‘두 시간 수업 동안 선생은 ……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상처가 찢어듯이 가슴이 아프다’, ‘나는 오빠가 우리들에게 …… 나 자신의 그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게 되었다’, ‘가장 빈번히 볼 수 있는 부인의 장애는 …… 남편이 주는 성적 만족만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대한 각각의 주석이 역사 주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타다. 원주다.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276-300

Ruth Benedict(2005) 앞의 책, pp.269-284

34)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319-329

35) 단, 제2장과 제13장에는 ‘바타안반도’라는 표제어가 나온다. 표제어는 동일하나 그 내용이 다르다. 여기서는 다른 주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43개의 주석이 된다.

박상현은 앞의 논문에서 초판인 제1판 『국화와 칼』의 주석을 ‘일본 관련 지식 유형’, ‘일반 지식 유형’, ‘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³⁶⁾, ‘역자 비평 유형’, ‘출전 명시 유형’과 같이 유형(類型)별로 구분했다.³⁷⁾ 이 유형 구분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화와 칼』의 주석을 유형별로 구분한 최초의 시도이고, 또한 유효한 유형 구분이기³⁸⁾에 본고에서는 이 유형 구분을 존중하여 제3판 『국화와 칼』에 보이는 143개의 주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5> 주석 유형

유형	주석의 표제어	개수	비율
일본 관련 지식 유형	추축국, 대본영, 이오지마, 아라키, 황도, 사무라이, 가미카제, 사이고 다카모리, 야마시타, 다이묘, 신토, 도조, 천장절, 칙유, 관동군, 대정익찬회, 전 시특별형법(이상, 2장), 공영권, 문자, 나라, 번, 미나모토 요리토모, 세이이 다이쇼군, 이에야스, 도자마 다이묘, 후다이 다이묘, 히데요시, 칼사냥, 에도 구계, 실권(이상, 3장), 왕정복고, 사공육민, 조선침략론, 사이고, 이토오 공작, 기도 후작, 부라쿠, 부·현, 국가 신도, 만세일제, 태양의 여신, 이세신궁, 가구라, 나리킨(이상, 4장), 가미가제 자살기 조종사, 옥쇄, 나쓰메 소세키(이상, 5장), 아사카와 간이치, 태양의 여신(이상, 6장), 노, 가부키, 가구라, 벤케이, 미나모토 요시쓰네, 노구치 히데요(이상, 7장), 가쓰 백작, 교육칙어, 군인칙유, 히로히토, 니토베 이나조,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47 로닌 이야기, 하라키리, 해군군축조약(이상, 8장), 간케이코 미즈고리, 겐지모노가타리, 모토오리 노리나가(이상, 9장), 아사노 기라, 오이시, 오쿠마, 스즈키(이상, 10장), 고토(琴), 샤미센, 도젠, 에이사이, 가가와 도요히코(이상, 11장), 이토리, 에치고(이상, 12장), 흑룡회, 시테하라, 러시아군의 항복, 노기진자(이상, 13장)	86개	60%

36) 일반 지식을 언급하지만 그것이 일본과 관련된 서술일 경우, 이 유형에 포함된다.

37) 박상현(2018) 앞의 논문, pp.214-215

38) 이런 판단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일반 지식 유형	제2전선, 다모클레스의 칼(이상, 제1장), 토크빌,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애국부인회, 아틀라스, 지도(이상, 3장), 허버드 스펜서, 윌리엄 블레이크, 호옴 스웻 솅, 스모을타임(이상, 4장), 런(6장), 게 슈탈트, 교외별전, 불림문자, 호일(이상, 10장), 베 블렌, 성 테레사, 3승 12분경, 성 시메온, 간교, 고안, 남악, 딜레마의 양 각(이상, 11장)	24개	16.90%
일반 지식 + 일본 관련 지식 유형	솔로몬 군도, 6월(이상, 제1장), 키스카 섬, 바티안 반도, 과달카날 섬, 홀란드아(이상, 2장), 페리제독, 타운센드 해리스(이상, 3장), 조지 샌섬(8장), 라프카디오 헨, 바타안반도, 포오츠머드조약(이상, 13장)	12개	8.45%
역자 비평 유형	데모크라시(2장), 천황은(3장), 모단(6장), 리처드 슨(8장), 국어독본, 신의, 고토(言), 기(이상, 10장), 양심(11장), 쉰(기)자처럼(12장)	10개	7.04%
출전 명시 유형	총(3장), 이토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이상, 4장), 과거를 물려받은 자(이상, 5장), 황금률, 양과 염소, 봉고문, 숯불(이상, 10장), 일점적, 어머니, 도망쳐 버린다(이상, 11장)	11개	7.74%

위의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86개(60%)로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일반 지식 유형’으로 24개(16.90%), 세 번째는 ‘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으로 12개(8.45%), 네 번째는 ‘출전 명시 유형’으로 11개(7.74%), 다섯 번째는 ‘역자 비평 유형’으로 10개(7.04%)다.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본 관련 지식 유형’ → ‘일반 지식 유형’ → ‘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 → ‘출전 명시 유형’ → ‘역자 비평 유형’의 순이 된다.³⁹⁾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제3판 『국화와 칼』의 주석 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독자에게 일본을 소개하는 도서를 번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본고에서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번역자의 관점’ 곧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해당하는 주석을 많이 붙이겠다는 ‘번역자의 관점’은 제1판 『국화와 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박상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1판 『국화와 칼』에는 총 54개(이 중, 중복 2개)의 주석이 보이는데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33개(2개 중복)로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일반 지식 유형’으로

39)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또한 전체 비율에서 보면 이들은 미미한 비율이다.

9개였고, 세 번째는 ‘출전 명시 유형’으로 6개였다. ‘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과 ‘역자 비평 유형’은 각각 3개였다. 비율로 보면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61.11%(중복 포함⁴⁰⁾)에 해당한다.⁴¹⁾ 곧 ‘일본 관련 지식 유형’ → ‘일반 지식 유형’ → ‘출전 명시 유형’ → ‘일반 지식+일본 관련 지식 유형’·‘역자 비평 유형’의 순이다

결국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독자의 이해를 돕고 싶다는 ‘번역자의 관점’ 곧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속하는 주석을 많이 하겠다는 ‘번역자의 관점’이 『국화와 칼』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4. 제3판 『국화와 칼』의 주석에 보이는 특이점

김윤식과 오인석은 『국화와 칼』에서 주석을 붙일 때 기본 원칙이 있었다. “각주(脚註)에서 *표는 원주(原註)이고, 그 나머지는 역주(譯註)임을 밝혀 둔다”⁴³⁾라는 것이다.⁴⁴⁾ 그리고 이것은 제1판부터 지켜왔던 원칙이다. 원주와 역주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은 번역자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원서와 번역서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는 한, 독자는 어떤 주석이 원주이고, 어떤 주석이 역주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번역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윤식과 오인석이 한국어판 『국화와 칼』에서 원주와 역주를 구분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석에 관한 번역자의 윤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석에 관한

40) 중복을 제외하면 59.61%이다. 이것은 제3판 『국화와 칼』에서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중복 제외) 60%와 거의 같다. 비율 측면에서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접하는 비율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단, 앞서 언급했듯이 제1판 『국화와 칼』은 완역이 아니다. 9장, 10장, 11장이 빠진 발췌번역이었다. 박상현(2018) 위의 논문, pp.215-216

42)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들어가는 주석이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윤식·오인석의 ‘번역자의 관점’은, 일본을 소개하는 번역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다. 하지만 모든 번역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런 관점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번역자의 관점’을 보이는 번역자가 있다. 박규태가 그렇다. 그는 지금까지의 『국화와 칼』에 대한 이해는 오독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한국어판 『국화와 칼』에서 “베네딕트의 장점과 한계, 일본 문화의 불변적인 요소(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와 가변적인 요소 등을 함께 보는 시각 및 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유기적인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각주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주석에는 ‘역자 비평 유형’에 속하는 주석이 특히 눈에 띈다.

박규태(2008) 『국화와 칼』문예출판사, p.414

43)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10

44) 이와 같은 번역자의 선언은 그들 스스로 번역자의 윤리를 지키겠다는 자기서약과 같다. 따라서 그 약속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자는 검증해야 한다.

번역자의 윤리는 대체적으로 지켜졌다. 다만, 아래 <표16>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표16> 제1판 『국화와 칼』 주석과 하세가와 마쓰지 『菊と刀』 주석 비교

표제어	제1판 『국화와 칼』 ⁴⁵⁾	하세가와 『菊と刀』 ⁴⁶⁾
토크빌 (제3장)	Alexis Tocqueville, <i>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i> (미국의 민주제에 대해서) 1835년.	Alexis de Tocqueville, <i>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i> (アメリカの民主制について) 1835.
미국애국부인회 (제3장)	1890년 워싱턴에서 창립되었는데, 회원은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한 조상의 후예로만 한정되었다.	一八九〇年ワシントンにて創立。会員は独立戦争に勝った父祖の後裔に限る。
스몰타임 (제4장)	본래 흥행물을 하루에 몇 번 되풀이 상연하는 것. 여기서는 적은 자본금을 빨리 회전시켜 이익을 보는 소공업자를 뜻한다.	本来興行物などで一日に何度と同じ出し物を繰返すこと。こゝでは、僅かな資本金の回転速度を速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利を占めようとする小工業者のことである。
과거를 물려받은 자 (제5장)	테니슨의 시에 ‘the heir of all the ages’란 말이 있다.	テニソンの詩に‘the heir of all the ages’の句がある。
모단 (제6장)	일본인의 발음투대로 모단을 Modan이라 표기하고 있다.	日本人の発音をまねて‘modan’と書いてゐる。

하세가와 마쓰지는 영어 원서가 출간된 2년 후인 1948년 12월에 일본어판 번역서인 『菊と刀』(上・下)를 출간했다.⁴⁷⁾ 그런데 위의 <표16>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윤식·오인석의 제1판 『국화와 칼』의 주석과 하세가와 마쓰지의 일본어판 『菊と刀』의 주석을 비교해보면, 표제어인 ‘토크빌’, ‘미국애국부인회’, ‘스몰타임’, ‘과거를 물려받은 자’, ‘모단’의 주석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김윤식·오인석이 하세가와 마쓰지의 주석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사례가 5개에 불과하다. 김윤식·오인석은 제1판 『국화와 칼』에서 총 54개(이 가운데, 2개 중복)의 주석을 달았기 때문이다. 중복을 제외하면 겹치는 비율은 10% 정도다. 또한 이들 표제어를 주석 유형별로 분류하면 그 대부분이 ‘일반 지식 유형’에 속한다(‘토크빌’, ‘미국애국부인회’, ‘스몰타임’). ‘출전 명시 유형’에 속하는 것이 하나(‘과거를 물려받은 자’)이고, ‘역자 비평 유형’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이다(‘모단’).

45)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74) 앞의 책, pp.305-314

46) 본고에서는 일본어판 『국화와 칼』을 『菊と刀』로 표기한다. 이하 같음.

長谷川松治(1948)『菊と刀』社会思想研究会出版部, pp.42-165

47) 長谷川松治(1948) 앞의 책, pp.1-454

결국 ‘일반 지식 유형’이 다수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서술 방식 및 내용이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모두 불식된 것은 아니다. 좀 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완역판인 제3판 『국화와 칼』의 주석과 하세가와 마쓰지 『菊と刀』의 주석을 비교해봐야 한다.

<표17> 제3판 『국화와 칼』주석과 하세가와 마쓰지 『菊と刀』 주석 비교

표제어	제3판『국화와 칼』 ⁴⁸⁾	하세가와『菊と刀』 ⁴⁹⁾
데모크라시 (제2장)	저자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일부러 일본인 발음을 흉내 내 ‘de-mok-rasie’라고 표기하고 있다.	著者はわざと日本人の口まねをして ‘de-mok-ra-sie’と書いてゐる。
토크빌 (제3장)	Alexis Tocqueville, <i>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i> (미국의 민주제에 대해서) 1835년.	Alexis de Tocqueville, <i>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i> (アメリカの民主制について) 1835.
미국애국부인회 (제3장)	1890년 워싱턴에서 창립되었는데, 회원은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한 조상의 후예로만 한정되었다.	一八九〇年ワシントンにて創立。会員は独立戦争に勝った父祖の後裔に限る。
총 (제3장)	Herbert Norman, op. cit., p.67 참조 “出女入鐵砲”의 근거는 다이묘가 처첩을 에도 성밖으로 밀행시키거나 총기를 성안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ノーマン前掲書邦訳六七頁、註三によれば、「出女入鉄砲」の禁は大名が妻妾を江戸府外へ密行させたり、銃器を府内へ持込むことの禁であった。
기도 후작 (제4장)	이토 히로부미 일행이 유럽에 간 것은 1882년이며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充, 1833-1877)는 그보다 5년 전인 1877에 사망했으므로 기도가 그 임무를 맡을 리가 없다. 이것은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1853-1942)의 착오이다. 가네코는 이토의 명을 받아 1889년 유럽에 가 스펜서를 만났다.	伊藤博文一行がヨーロッパに行ったのは一八八二年であり、その五年前一八七七年木戸孝充は死んでゐるのだから、木戸がさういふ任に當った筈はない。これは金子堅太郎子爵の誤りである。金子は伊藤の命を受けて、明治二十二年(一八八九年)に、随員中橋徳太郎、木内重四朗、水上浩躬、太田峯三郎を随へ、英文憲法を携へて、諸家の意見を叩くべく渡欧した。そしてこの時にスペンサーと会見したのである。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제4장)	윌리엄 블레이크의 Songs of Experience 중의 the Little Vagabond의 일절.	Songs of Experienceの中にある ‘the Little Vagabond’の一節。

48)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95) 앞의 책, pp.42-133

49) 長谷川松治(1948) 앞의 책, pp.42-351

스물타임 (제4장)	본래 흥행물을 하루에 몇 번 되풀이 상연하는 것. 여기서는 적은 자본금을 빨리 회전시켜 이익을 보는 소공업자를 뜻한다.	本来興行物などで一日に何度も同じ出し物を繰返すこと。こゝでは、僅かな資本金の回転速度を速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利を占めようとする小工業者のことである。
과거를 물려받은 자 (제5장)	테니슨의 시에 ‘the heir of all the ages’란 말이 있다.	テニソンの詩に ‘the heir of all the ages’의句がある。
모단 (제6장)	일본인의 발음투대로 모단을 Modan이라 표기하고 있다.	日本人の発音をまねて ‘modan’と書いてある。
황금률 (제10장)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	マタイ伝七章、一二節の「凡て人に為られんと思ふことは、人にも亦その如くせよ」のこと。
양과 염소 (제10장)	마태복음 25장 32-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マタイ伝、二五章、三二―三三節、「かくてその前にもろもろの国人あつめられん、之を別つこと牧羊者が羊や山羊を別つが如くして、羊をその右に、山羊をその左におかん」。
봉고문 (제10장)	후쿠모토 니치난(福本日南)의 <겐로쿠 채거록(元禄快挙録)>에 의하면 묘전의 봉고문은 후세의 날조라 한다. 여기서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두었다.	福本日南の『元禄快挙録』によれば、墓前奉告文は後世の捏造である。ここでは英文をそのまま訳出しておいた。「大体次のやうな意味云々」は訳者の補筆である。
국어독본 (제10장)	이것은 일본의 <소학 국어 독본>제10권(심상과용, 쇼와 12년 발행)의 제21, “국법과 대자비”를 가리킨 것이 틀림없으나 여기에 인용된 그대로의 문구는 찾을 수 없다.	これは『小学国語読本』(尋常科用)第十(昭和十二年発行)、第二十一「国法と大慈悲」に相違ない。ところがここに引用されてゐる通りの文句は見当たらない。
신의 (제10장)	이 대목은 베네딕트가 이용한 칙유의 공인 영역에서는 “If you wish to keep your word and to fulfill your gimu”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베네딕트는 이 ‘and’를 몹시 중시해서 읽어 “사적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일과 기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반드시 항상 양립하기는 어려운 두 개의 사항을 양립시키기 위해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그 의미의 보충을 괄호 속에 넣어서 “If you wish to keep your word(in private relation) and (also) to fulfill your gimu”라는 식으로 쓰고 있다.	このくだりは英訳では、“If you wish to keep your word and to fulfill your gimu”となつてゐる。そしてベネディクトはこの‘and’を馬鹿に重視して読み、「私的關係に於て約束を守ることと、『義務』を果すといふ、必ずしも常に兩立し難い二つの事柄を兩立させるためにには」の意味であらうと誤った解釈を下し、そのやうな補足的な言葉を括弧の中に入れて付け加へてゐる。
고토큐(言) (제10장)	여기서도 베네딕트는 고토큐(言)와 기(義)를 대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ここでもベネディクトは「言」と「義」とを對立的に考へてゐる。

기 (제10장)	앞의 역주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베네딕트는 이 대목을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기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이라는 뜻으로 잘못 읽고 있다. 그러므로 “기리를 위해 정의를”과 동일한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前項の訳註で述べたやうに、ベネディクトはこの所を、「個人的な約束を守ると同時に義務を守ることとはできないとわかったならば」の意味に読み違へてゐるのである。だからこそ、「義務のために正義云々」と同一内容を言ひ表はすものと考へたのである。
호일 (제10장)	Edmund Hoyle(1672-1769). 처음 위스트(일종의 트럼프 놀이)의 법칙을 조직화한 사람. ‘호일에 따라서(according to Hoyle)’라는 표현은 트럼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나 ‘정적(定跡)에 따라서’, 즉 기성의 건설한 수법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oyle, Edmund(1672-1769) 始めてウイスト(一種のトランプ遊戯)の法則を組織化した人. ‘according to Hoyle’はトランプのみならず、一般に何事でも「定跡に従つて」、即ち既成の手堅い手法によつて行ふことを意味する。
숯불 (제10장)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 함으로 네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ロマ書、第一二章、二〇節、「もし汝の仇飢ゑなば之に食はせ、渴かば之に飲ませよ。なんぢ斯するは熱き火を彼の頭に積むなり」
베블렌 (제11장)	Thorstein Veblen(1857-1929).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Veblen, Thorstein(1857-1929)、アメリカの著名な経済学者。
성 테레사 (제11장)	Santa Thersa de Jesus(1515-1582) 및 Juna de Cruz, 혹은 Juna de Yepezy Alvarez(1542-1591), 모두 스페인 카르멜 교단에 속하는 신비주의자.	Santa Thersa de Jesus(1515-1582)、及び Juna de Cruz,もしくは Juna de Yepy Alvarez(1542-1591)、共にスペインのカルメル教団に属する神秘主義者。
일점적 (제11장)	이 ‘one-pointed’라는 말은 스즈키(鈴木)의 Eassys in Zen Buddhism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로, 스즈키의 설명에 의하면, 산스크리트어 ‘에카그라(ekagra)’의 역어로서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주객미분(主客未分), 즉 마음이 한 점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통상 불교 쪽에서는 ‘일연(一縁)’, ‘일심(一心)’ 등으로 번역된다.	この ‘one-pointed’ といふ語は、鈴木大拙先生の ‘Eassys in Zen Buddhism’ の中で用ひられてゐる語で、大拙先生の説明によると、梵語の ‘에카그라’ ekagra(楞伽經などに出て来る)の訳語として撰ばれた由、主客未分、心が一点に集中されてゐる状態を表す。通常佛教の方は「一縁」、「一心」などと訳されてゐる。
성 시메온 (제11장)	Saint Simeon. 3-4세기의 수도승. 북시리아 출신으로 30년간 기둥 위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 기둥은 처음에는 1미터 80센티미터 높이였으나 점차 높아져 18미터까지 올라갔다고 전해지며, 그는 그 기둥 위에서 설교하였다 한다.	Saint Simeon. 三世紀から四世紀にかけての修道僧、北シリアの出身、三十年間柱の上で暮したと言ふ。その柱は段々高めて行き、最初は六フイートであつたのが、おしまひには六十フイートの高さになつたと言ふ。その柱の上から説教をした。

어머니 (제11장)	위의 구는 “어두운 밤에 울지 않는 까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이다. 소위 “父母未生以前本來面目”을 말한다.	上の句は「闇の夜になかぬ鳥の声きけば」である。所謂「父母未生以前本來面目」のこと。
남악 (제11장)	육조 대감 혜능 선사(六祖大鑑慧能禪師)의 법사(法嗣). 금주(金州) 사람, 당나라 현종 천보(天寶) 3년(1404) 68세로 시寂(示寂), 대선 혜사(大禪慧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 범맥에서 임제(臨濟), 위양(僞仰)이라는 두 종파가 나왔다.	六祖大鑑慧能禪師の法嗣、金州の人、唐玄宗天寶三年(一四〇四)六十八才で示寂、大慧禪師と諡される。その法脈から臨濟・僞仰の二宗が出ている。
도망쳐 버린다 (제11장)	선어자휘(禪語字彙)에 의하면 “저개본문저(這箇本分底)의 일을 한 마디라도 말하면 맞지 않는다.”라는 뜻.	禪語字彙によれば、「這箇本分底の事は一言でも云へば即ち当らず」の意味。
딜레마의 각 양 (제11장)	가언적(假言的)·선언적(選言的) 삼단논법(그 대표적인 것은 딜레마, 즉 양도논법(兩刀論法)에서 소전제(小前提)에 의하여 긍정 또는 부정되는 사항을 ‘각(角)’이라 부른다.	假言的・選言的三段論法(その代表的なものはヂレンマ、即ち兩刀論法)に於て、小前提によって肯定又は否定される事項を「角」と呼ぶ。
양심 (제11장)	영어의 ‘양심(conscience)’은 원래 ‘의식(consciouness)’의 의미라는 데 주의할 것	英語のconscience(良心)は元來consciouness(意識)’の意味であることに注意。

위의 <표17>에서 알 수 있듯이 주석의 서술 방식과 내용에서 제3판 『국화와 칼』에 제시된 주석 가운데 27개의 주석은 하세가와 마쓰지 『菊と刀』주석과 완벽하게 겹치거나 거의 같다. 143개의 주석 가운데 27개가 겹치기에 중복율은 18.88%다. 이들 27개 주석을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 관련 지식 유형’이 1개(기도 후작), ‘일반 지식 유형’이 9개(토크빌, 미국애국부인회, 스모올타임, 호일, 베블렌, 성 테레사, 성 시메온, 남악, 딜레마의 양 각), ‘역자 비평 유형’이 7개(테모크라시, 모단, 국어독본, 신의, 고토, 기, 양심), ‘출전 명시 유형’이 10개(충,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과거를 물려받은 자, 황금물, 양과 염소, 봉고문, 숯불, 일점적, 어머니, 도망쳐 버린다)다.

이와 같은 제3판 『국화와 칼』과 하세가와 마쓰지 『菊と刀』의 상호간 겹치는 주석을 주석 유형별로 살펴본 아래 <표18>은 흥미롭다.

<표18> 상호 겹치는 주석의 유형별 비율

주석 유형	상호 겹치는 주석 수	주석 유형별 총수	겹치는 비율
일본 관련 지식 유형	1개	86개	1.16%
일반 지식 유형	9개	24개	37.5%
역자 비평 유형	7개	10개	70%
출전 명시 유형	10개	11개	90.90%

‘일본 관련 지식 유형’과 ‘일반 지식 유형’은 겹치는 비율에서 볼 때, 우연의 일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역자 비평 유형’과 ‘출전 명시 유형’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상호 겹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역자 비평 유형’이 70%이고, ‘출전 명시 유형’은 무려 90.90%에 달한다. 비율 측면에서 볼 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⁵⁰⁾

김윤식과 오인석은 제3판 『국화와 칼』을 출간하면서 주석의 양을 대폭 늘렸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세가와 마쓰지의 주석을 적지 않게 참조했는데, 그때 나(김윤식·오인석)의 주석과 타인(하세가와 마쓰지)의 주석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5. 마치며

본고에서는 한국어판 『국화와 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김윤식·오인석이 공역한 제3판 『국화와 칼』에 보이는 주석을 고찰하여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에 대해 각각 살펴봤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번역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김윤식·오인석은 제3판에서 주석을 붙일 때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석을 달 때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인 독자를 위해 주석을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번역자의 관점은 제1판부터 일관됐다.

다음으로 번역자의 윤리에서 보자. 그들은 한국어판 『국화와 칼』에서 주석을 붙일 때 원주

50) ‘역자 비평 유형’이 적지 않게 겹친다는 것은 『국화와 칼』의 한국어판 번역자가 주체적 관점에서 주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출전 명시 유형’이 많이 중복된다는 것은 김윤식 등이 출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일본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와 역주를 구분하여 표기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번역가의 윤리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3판에는 일본인 번역자인 하세가와의 주석을 적절한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보인다. 이 점은 번역자의 윤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⁵¹⁾

【참고문헌】

- 김상규(2005)『『국화와 칼』의 사회학』『일본어문학』제29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551-574
 권숙인(2003)「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국제지역연구』제12집,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p.45-66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1974)『국화와 칼』(제1판), 을유문화사, pp.6-7
 _____(1991)『국화와 칼』(제2판), 을유문화사, p.5
 _____(1995)『국화와 칼』(제3판), 을유문화사, pp.14-25
 로렌스 베누티 저·임호경 역(2006)『번역의 윤리』열린책들, pp.1-350
 박규태(2008)『국화와 칼』문예출판사, p.414
 박상현(2018)「김윤식·오인석 공역『국화와 칼』연구-주석 유형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6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0-25
 박용구(2014)「전시 정책보고서로서의『국화와 칼』」『일본연구』제6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p.83-108
 정영목(2018)『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문학동네, p.61
 長谷川松治(1948)『菊と刀』(上·下) 社会思想研究会出版部, pp.1-454
 Ruth Benedict(2005)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Mariner Books, pp.1-316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06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6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51) 번역론의 관점에서 한국어판『국화와 칼』을 논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번역어의 문제, 오역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는 새로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로 안타깝게도 2018년 10월 25일에 김윤식 교수가 작고했다. 향년 82세였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빈다.

〈要旨〉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

- 김윤식·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제3판)을 중심으로 -

박상현

본고에서는 한국어판 『국화와 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김윤식·오인석이 공역(共譯)한 제3판 『국화와 칼』에 보이는 주석을 고찰하여 번역자의 관점과 윤리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번역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김윤식·오인석은 제3판에서 주석을 붙일 때 ‘일본 관련 지식 유형’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석을 달 때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인 독자를 위해 주석(註釋)을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번역자의 관점은 제1판부터 일관됐다.

다음으로 번역자의 윤리에서 보자. 그들은 한국어판 『국화와 칼』에서 주석을 붙일 때 원주(原註)와 역주(譯註)를 구분하여 표기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번역가의 윤리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3판에는 일본인 번역자인 하세가와(長谷川)의 주석을 적절한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보인다. 이 점은 번역자의 윤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Translator's Perspective and Ethics

- Kim Yoon-sik and Oh In-suk's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3rd edition)
as an example -

Park, Sang-Hyun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annotations in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3rd edition), which is a synonym for Korean version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which is a synonym of Kim Yun-sik and Oh Inseok. And I looked at the perspective and ethics of the translator.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Let's start with a translator's perspective. Kim, Yoon-Sik and Oh In-seok have put a great deal of weight on "knowledge related to Japan" when annotating the third edition. This means that when they commented, they were stronger to comment for Korean readers who were not familiar with Japan. And this tendency was consistent from the first edition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Next, let's look at the ethics of the translator. They wanted to keep the principle of dividing original annotation and Translator annotation in Korean version. It is worth evaluating in terms of the ethics of the translator. In the third edition, however, there is a portion of the Japanese translator, Hasegawa, who has borrowed the annotations without proper quoting marks. This point must be evaluated negatively in terms of the ethics of the translator.